

지역 매 아리



정읍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초대형 태극기 내걸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11일 정읍시 청사에 12x18m 초대형 태극기가 내걸렸다. 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민족자존과 국권회복을 위해 펼쳐 일어섰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내걸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6월 8일 현충일과 8.15 광복절 주간에도 대형 태극기를 걸어 선열들의 애국혼을 기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00주년 3·1절에도 대형 태극기를 걸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일상 속 불합리 개선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정읍시가 기업현장과 일상생활 등 경제 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국민 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취업과 일자리 △지역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다. 일상생활 속 불편규제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라면 어느 부문이라도 제안이 가능하다. 정읍시민과 정읍시 소재 기업체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심사를 통해 모두 10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해 총 200만원(최우수 1건 70만원, 우수 2건 각 30만원, 장려 7건 각 1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중 발표된다. 시는 선정된 우수과제 중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체법규는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불합리한 기업 규제의 생활 속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규제 발굴에 기업체와 시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에 총력

유기상 고창군수, 문화재청 방문해 '선운사 참담암 석조지장보살좌상' 등 승격 요청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고창 선운사 참담암 석조지장보살좌상' 등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유·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사적)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난 9일 문화재청 관련 부서들을 방문해 "관내 가치 있고 우수한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그동안 '선운사 참담암 석조지장보살좌상(선운사 약사래/도 유형 제33호), '선운사 만세루(도 유형 제33호), '문수사 대웅전(도 유형 제51호), '고창오거리당산계(도 무형 제37호), '고창농악(도 무형 제7-6호), '고창 하교리 왕버들나무 숲(도 기념물 제17호), '고창 무장동화농민혁명기포지(도 기념물 제12호) 등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 전라북도와 문화재청에 요청해 왔다. 또 고창군은 '선운사 참담암 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을 비롯해 '상금리 지식묘군', '부곡리 탁자식 지식묘', '남당회맹단', '무형문화재 지주장' 등도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학술조사 및 관련전문가 자문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25점 등록문화재 2점, 전라북도지정문화재 50점, 고창군 향토문화유산 8점 등 총 94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은 세계 최대 밀집도를 보이는 고인돌 등 한반도 첫 수도로서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유산을 가득 보유한 역사 깊은 도시로 무한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관내 문화유산이 전북도 지정문화재 및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실무 능력 갖춘 청년 수제화 인재 양성

정읍시, 슈메이커 양성사업 본격 시작... 17일까지 교육생 모집

정읍시가 슈메이커(Shoe Maker) 양성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시는 "전라북도공예협동조합과 함께 실무 능력을 갖춘 청년 수제화 인재를 육성하고 취·창업 지원을 위해 슈메이커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시는 이달 17일까지 슈메이커 교육생을 모집한다. 청년 슈메이커 양성 사업은 청년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제화 장인들의 1:1 도제방식 교육을 통해 슈메이커를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 과정이다. 수제화 관련 취·창업에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 10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초급과정은 진행된다. 신청은 이달 17일까지 전라북도공

예협동조합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정읍시예술회관 1층 한국예총정읍지회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정읍 청년 메이커 센터 조성사업'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일자리 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포함 총12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청년 메이커 센터(maker center)를 건립할 예정이다. 2층 규모로 조성될 청년메이커 센터에는 기술교육장과 창업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신임 이강환전북지역본부장이 11일 부안군 계화지구 태양광발전사업 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이강환 전북본부장, 부안 계화지구 태양광발전사업 현장 방문

한국농어촌공사 신임 이강환전북지역본부장이 11일 부안군 계화면에 위치한 계화지구 태양광발전사업 시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시설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등 태양광발전사업 시설현장을 살폈다. 특히 2018년 상업발전을 시작한 계화 2, 3, 4 지구(2.85MW) 태양광발전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를 통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발전소 완공을 추진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부안지사는 계화 5, 6, 7 지구(2.85MW)를 금년 상반기내 착공해 주

민상생 및 공사지립경영 기틀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강환 부안지사장은 "2019년도 영농기를 대비 관내 각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영농수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보건소가 10일과 11일 양일간 건강증진센터에서 3색 캐릭터 유부초밥 만들기 요리교실을 진행했다.

정읍시보건소, '영양플러스 행복플러스' 요리교실 운영

정읍시보건소가 '영양플러스! 행복플러스!' 요리교실을 운영했다. 보건소는 10일과 11일 건강증진센터에서 3색 캐릭터 유부초밥 만들기 요리교실을 진행했다. 영양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요리 교실은 임신부와 영유아에게 손쉬운 조리방법과 다양한 보충식품 활용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참가자를 직접 요리해 참여시킴으로써 교육에 재미를 더하고 있다. 또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통해 영유아의 영양 관리와 편식 예방을 돕고 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가 부족한 영유아와 임신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에게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고 영양교육을 진행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 소득 66% 미만의 영양문제를 가진 임신·출산·수유부와 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관련해 보건소는 매일 영양교육과 영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이루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보충영양식품(조제분유 등 12종)을 월 2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가정으로 직접 배송, 영양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가정은 신청을 통해 영양플러스사업의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운곡습지 농산물 싸게 사세요"

오베이골 토요일터 내일 개장... 농산물·수공업품 판매

고창군 '오베이골 토요일터'가 지난해 인기에 힘입어 올해도 매주 토요일 장이 산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인돌공원과 운곡삼사르습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편의와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내일부터 '오베이골 토요일터'를 운영한다. 고인돌공원 내 다리목(고창읍 매산 마을 경로당 일대) 주변에서 진행하는 '오베이골 토요일터'는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토요일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나와 판매 할 뿐만 아니라 시식과 홍보 행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 30여명의

마을주민들과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의회가 함께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먹거리, 수공업품 등 40여 가지 품목을 판매한다. 고창군은 운곡습지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통단계 없이 고창 대표 관광지에서 직접 판매함으로써 고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도시와 농촌 간 상생과 나눔 경영에 일조하는 직거래 장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오베이골 토요일터는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함께 즐기는 고창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며 "고창의 우수한 농산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mulberry tree and several bottles of win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생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부안강산명주 GIFT SET'. It lists various gift sets with prices and alcohol content, such as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분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and 'GIFT SET 7세 | 375ml 2ea/13%'. The website www.gangsanwine.com is also mentioned.